보도일시 2026. 11. 17.(화) 배포 2026. 11. 17.(화)

동해해수청, 묵호등대 담장 보수 및 벽화로 새 단장
- 설문조사를 통한 우수 디자인 선정으로 해양문화공간 경관 개선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이번달 16일 묵호등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묵호등대 내 노후 담장을 보수하고 새로운 벽화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묵호등대는 동해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쉼터 담장 노후로 인한 균열과 박리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담장을 보수한 뒤 벽화 도색을 새롭게 추진하여 묵호등대 해양문화공간의 분위기를 보다 밝고 생동감 있게 개선했다.

특히 이번 벽화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호도가 높은 그림을 방문객의 시선에 잘 닿는 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관광객들이 보다 친근하게 벽화를 관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친근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참고 **사진대지**



묵호등대 담장 벽화